

기고

리튬이온배터리, 편리함 속의 불씨를 경계하자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PM) 보급이 늘어나면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동스쿠터 배터리 화재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나주 노안면에서 트럭에 적재된 드론용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고온·밀폐된 보관환경 속에서 '열폭주' 현상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빠른 초기 진화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처럼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길거리 등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 가벼운 무게, 충·방전 효율성이 뛰어나 휴대용 전자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 뒤에는 과충전, 외부충격, 부적절한 보관으로 사용 시 화재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일상 가까이에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결코 가볍지 않은 위험성도 함께 존재한다. 지난 5년간(2020~2024) 전국에서 발생한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에 달하며 이 중 전동 킥보드 485건(77.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매년 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KC 인증 제품 충전기 사용 - 인증되지 않은 저가 충전기 사용은 위험을 키운다
2. 충전 관리 - 충전 완료되면 즉시 플러그 뽑아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3. 충전 장소 - 통풍이 잘되고 주변에 가연성 물품이 없는 장소에서 충전한다. ※현관문, 비상구 근처 충전금지(화재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한)
4. 외부 충격 주의- 배터리를 떨어뜨리거나 임의 개조·수리하지 않는다
5. 안전한 보관 -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작은 부주의가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불씨로 번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올바른 사용 습관이 중요하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시하

온갖 재주를 다 부린다. 아무런 형체도 없는 것들이. 인간을 매우 즐겁게 해주는 재주는 물론 살상하는 재주 또한 엄청나다. 악인들일수록 수없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선인들은 사랑의 꽃을 한없이 피워내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고, 그야말로 야누스의 최고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들 양자 사이에서 삶을 영위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항상 인간과 함께 생존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영원히 기생할 테니까.

말을 잃고선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 치도 안 되는 혀가 그만큼 요물이라는 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온갖 난무들을 추고 있다. TV 등 언론 매체들을 보기 싫을 정도다. 무시무시한 단어들만 난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름깨나 있다는 정치인들일수록 교묘하게 혀를 돌려대고 있다. 그것도 아주 악랄하게. 다시는 상대방을 보지 않을 듯이. 이를 인지한 상대방 역시 이와 비슷하든지 그 이상의 악랄성을 토해낸다. 이를 보고 듣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또한 무슨 죄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왜들 이러는가, 인생은 참으로 단순한데

인간. 이들의 격전을 보면 누가 잘못했고 안 했는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거의 날마다 영상에 나타나는 정치인들일수록 선거철마다 또 나와서 당선돼 이런 악질적인 추태들을 더 부릴 것 아닌가.

이런 인간들이 도대체 왜 정치(政治)를 하는지 모르겠다. 정치란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지 않겠는가. 또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을 한다는 속속들이 아닌가. 제발 더이상 이런 악질적인 범죄

적 추태만은 벌이지 말길 바란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비롯한 모든 가족과 일가친척들에게 민망하지 않게.

말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잖은가.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준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말은 향기를 피워내지만 험담 등 악언은 독소를 쏟아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석양의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떠나가면서도 맹렬했던 한낮의 기상을 잃지 않고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산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아쉬워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되씹어 볼 일이지 않을까. 각설하고 여야 정치인들을 봐보라.

언젠가는 반드시 말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어떠한 궤변으로도 무마될 수 없는 몇 푼 가진 자들의 천박한 의식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지역민들 덕분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중앙에서 벼슬한 사람들 등 가진 자들로 스스로를 잘 여며보길 바란다. 항상 말을 조심하면서. 지금으로부터 2,576년 전에 태어난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철학자 공자는 이런 말을 했다. 인생은 참으로 단순하다고. 그런데 자꾸 세상이 복잡해지는 것은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꾸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면서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고도 했다. 여기에 타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 말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는 말까지 곁들였다. 왜들 이러는가, 인생은 참으로 단순한데, 단순한데 말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예방이 최고의 소방, 신고가 안전을 지킨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단 시간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상구 폐쇄·차단, 소방시설 차단과 같은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 제도는 누구나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실질적 장치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서 소방시설은 곧 생명의 통로다. 그러나 비상

구가 막히거나 소화전이 불법으로 차단된 상태라면 화재 시 대피와 초기 대응이 불가능해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된다. 신고 포상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예방이 최고의 소방'이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무엇보다 제도의 성패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하

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빨라진다.

소방당국 또한 신고를 철저히 처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

화재 없는 안전한 사회는 소방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높은 안전 제도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정재성

오늘의 운세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음력 9월 18일)

<p><b>48년생</b> 급할이유 없다 뒷편을 지켜내자 60년생 늦게 만난 인연 사람으로 이어진다. 72년생 서운함도 잠시 이해하고 감싸주자 84년생 똑같은 실수 인정하고 부끄럽다 96년생 기대도 희망도 무리무리 자라내다.</p>	<p><b>49년생</b> 합격성적표로 견해를 과시하자 61년생 갈로 물베기 싸움, 못 이긴 척 저주자 73년생 내세움 게 없이도 솔직해야 한다 85년생 비범이 라면 비범함을 흘려보자 97년생 화초가 더 눈앞에 각오를 다시 하자.</p>	<p><b>50년생</b> 평행한 대결 자존심이 되어야 한다 62년생 계산 없는 정사로 신뢰를 쌓아 가자 74년생 미리 하는 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86년생 굳게 했던 다짐 완성이 되어야 한다 98년생 여럿 중에 으뜸 반짝반짝 빛나.</p>
<p><b>51년생</b> 바쁘게 하는 결정 금방 후회기 된다 63년생 손해가 아니면 도장을 찍어 주자 75년생 틀리지 않은 자격의 미를 달리 하자 87년생 잘대적 인민을 한 우물을 파 보자 99년생 칭찬 받으려다 미움으로 돌아온다.</p>	<p><b>52년생</b> 가난했던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자 64년생 잔인사대천령 기다림을 더해보자 76년생 넓은 시원 지니고 평화기 다시 온다 88년생 의욕적인 모습 점수로 매겨진다 100년생 나리를 구한듯 무용담이 펼쳐진다.</p>	<p><b>53년생</b> 궁하면 통한다. 방법을 찾아내자 65년생 세상이 웃어주는 재미에 빠져보자 77년생 첫 술에 배부르려 꾸준히 해야 한다 89년생 조직의 중심 계급장이 달려야 한다 01년생 다른 세상 살았던 반성문을 써보자.</p>
<p><b>54년생</b> 반가움이 역력한 손님맞이 해보자 66년생 경시 떨어짐이 단단함을 더해 준다 78년생 착하고 여러개 주변을 돌아보자 90년생 장정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자 02년생 배짱은 두둑하게 승부에 나서보자.</p>	<p><b>55년생</b> 다시 외운 것에 감사함을 가져보자 67년생 무를 끊지 않는 곳의 힘을 지켜보자 79년생 서로에게 끌리는 만남을 가져보자 91년생 쉽게 않은 허락 고리가 달려야 한다 03년생 워든지 따라하고 열심히 배우자.</p>	<p><b>56년생</b> 살리고 들뜨지는 계산을 돌아보자 68년생 내심 했던 기대 메아리가 되어야 한다 80년생 서로를 이별 인사 화해도 깊어진다 92년생 고생한 보람 지갑이 든든해진다 04년생 자칫 하는 방심 후유증이 크게 온다.</p>
<p><b>57년생</b> 경험과 연륜 차별화를 보여주자 69년생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를 받아보자 81년생 늦춰지는 속도에 배움을 가져보자 93년생 예쁨이 담겨진 선물을 받는다 05년생 입 밖에 나온 말은 책임져야 한다.</p>	<p><b>58년생</b> 피곤한 부탁에 한마디만 늘어난다 70년생 해가 숨겨져야 걱정에서 벗어난다 82년생 길하고 있어도 눈치를 봐야 한다 94년생 멋을 모르면 투박함을 지켜내자 06년생 풀려져 있는 긴장 반성문을 써보자.</p>	<p><b>47년생</b> 차갑게 등 돌리고 미련을 끊어내자 59년생 질보다 양이다. 많은 것을 가져오자 71년생 배기 들어 행복 기쁨을 다시 하자 83년생 단단한 현실이 꿈을 가로 막는다 95년생 처음이 어려워도 포기하는 글물이다.</p>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p><b>광 전 매 일 신 문</b>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p>	
<p>회 장 이 송 암 발행인·대표이사 정 길 화</p>	<p>편집인전 광 찬 편집국장 박 선 주</p>
<p>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p>	<p>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p>
<p>대표전화 (062) 525-9775</p>	<p>&lt;팩 스&gt; (062) 528-4566</p>
<p>회장실 (내선) 210</p>	<p>교 2001</p>
<p>임원실 (내선) 207</p>	<p>교 2003</p>
<p>총무국 교 2002</p>	<p>사 회 부 교 2004</p>
<p>광고국 교 2006</p>	<p>사 업 국 교 2007</p>
<p>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47,000원</p>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